

기름때 제거는 커피 가루로 ☞ 커피 가루 활용 팁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 중 하나다. 부드럽고 고소한 향기와 입 안을 맴도는 씹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매력적이다. 특히 집에서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신다면 원두를 갈고 난 커피 가루(커피 찌꺼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생활 곳곳에서 활용하자. 커피 가루의 쓰임새는 의외로 많다.

1. 목재 가구에 생긴 흡집

목재 가구는 보기엔 아름다워도 흡집이 잘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커피 가루를 이용해 이 흡집을 말끔히 없앨 수 있다.

커피 가루에 린시드유를 섞은 후 붓을 이용해 스크래치 자국에 살살 발라준다. 단, 커피 가루와 린시드유의 비율 배합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므로, 가구에 바르기 전 색깔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미리 테스트를 해 본다. 잠시 말린 뒤 마른 헝겊으로 닦아내면 가구의 흡집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발 냄새 제거

발 냄새 때문에 고민이라면 커피 가루를 티백에 넣은 뒤, 티백 주머니를 신발 안에 넣고 하루 기다린다. 다음 날, 신발에서 나던 발 냄새가 말끔히 사라져 있을 것이다.

3. 손 냄새 제거

집안 일을 하다 보면 손에 음식 등의 냄새가 배는 경우가 있다. 비누로 씻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커피 가루에 손을 담가 문질러 보자. 커피 가루가 손에 밴 약취를 제한다.



4. 셀룰라이트 제거 비누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가 고민이라면 커피 가루가 든 비누를 활용해 보자.

먼저 잘게 자른 투명 글리세린 비누를 중탕으로 녹인다. 여기에 커피 가루를 일정량 섞어준 뒤, 미리 준비한 비누용 사각틀에 부어 그대로 굳힌다. 셀룰라이트로 고민인 피부에 대고 살살 문질러 주면 셀룰라이트가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기름때 제거

프라이팬 등에 밴 기름때, 세제로 아무리 박박 문질러도 잘 지워지지 않아 고민이었다면? 피부와 몸에 좋지 않은 강력한 화학 세제 대신 커피 가루를 이용하자. 뜨거운 물에 커피 가루를 푼 후 커피 가루 물을 스펀지에 묻혀 설거지를 하면 찌든 기름때가 말끔히 사라진다.

6. 천연 염료

새로 산 테이블에 잘 어울릴 빈티지 색깔 식탁보(또는 테이블 매트)가 필요하다면? 하얀 헝겊에 커피 가루로 직접 물을 들여보자. 천연 잠길 만한 물통에 물을 담고 커피 가루를 풀어준다. 준비한 헝겊을 커피 가루 물에 모두 잠기도록 충분히 담갔다 3시간 뒤, 꼭 짜낸 헝겊을 상온에 말리면 천연 빈티지 식탁보 완성!

7. 천연 비료

커피 가루는 식물에게 훌륭한 천연 비료가 된다. 커피 가루는 식물이 배수, 공기 공급, 수분 보유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 모아둔 커피 가루 몇 큰 술을 키우는 화분에 그대로 넣어 주면 며칠 뒤, 화분의 잎이나 꽃이 훨씬 더 생기 있는 모습으로 당신을 맞이할 것이다.

8. 각질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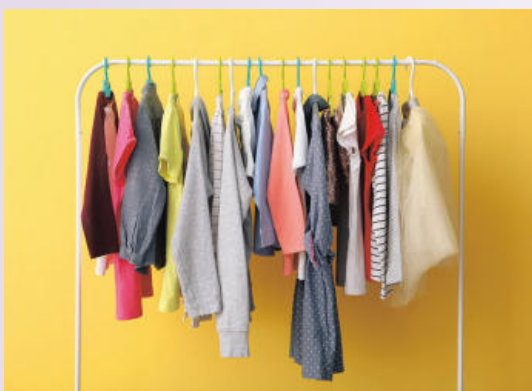
입자를 아주 곱게 하려면, 커피 가루를 한번 더 갈아 준다. 각질제거를 위해 올리브 오일과 섞는다. 얼굴에는 매끈함만 남을 것이다.

9. 벽난로 청소

커피 찌꺼기로 벽난로를 좀 더 빨리 청소할 수 있다. 재를 쓸기 전에, 눅눅한 커피 찌꺼기를 뿌린다. 커피 찌꺼기가 먼지를 덮어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니는 것을 도와준다.

사진=shutterstock

옷고름 때 품질 불량 기려내는 꿀팁



소매는 해지고, 형태는 틀어지고, 박음질은 뜯어지고... 어떤 옷은 첫 세탁 후에 입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기도 한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옷을 구입하기 전에 꼼꼼히 품질을 따져보고 사야 한다. 옷을 사기 전에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자.



1. 바느질 상태

브라나 블라우스, 스커트 등을 사기 전, 옷감 안팎으로 바느질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바느질이 전체적으로 고르고 촘촘하게 되어 있는 상품을 구입해야 한다. 재봉 과정에서 위치가 뒤틀린 채로 박음질 된 옷은 걸만 멀쩡하고 뒤집어보면 엉망인 경우가 있다. 또한, 한군데에만 박음질이

여러 번 되어 있거나 들쭉날쭉한 옷은 곧바로 제자리에 돌려놓길.

2. 단 처리

날렵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단 처리 작업은 숙련자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단 처리가 훌륭해야 세탁기에 넣고 몇 번이고 돌려도 옷이 망가지지 않는다. 단의 시작부터 끝까지 박음질이 끊겼다 이어져선 안 되며, 접힌 양쪽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 비스코스 주름

비스코스를 사용해 만드는 품질 좋은 인조견은 저렴한 동시에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옷 한쪽을 잡고 꼭 쥐었다 풀었을 때 주름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품질이 떨어지는 옷감을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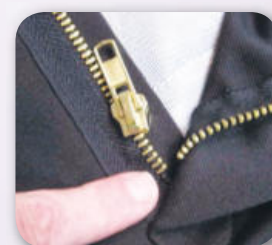
4. 어긋난 무늬

벽지처럼, 옷에 들어간 패턴도 끊어지거나 어긋나지 않고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야 한다. 무늬가 똑 끊긴 듯 이어진 옷은 그만큼 영성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5. 비뿔어진 옷감

옷을 세로로 반 접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스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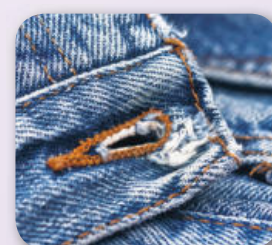
터의 왼쪽과 오른쪽 어깨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이미 재단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다. 단 근처의 옷감을 살짝 늘려보아 옷감이 단과 평행하거나 45° 기울기를 이루어야 한다.



6. 지퍼 상태

지퍼 달린 옷은 입고 벗기 편한 데다가 요즘엔 포인트 패션으로도 널리 쓰이는 추세이다. 지퍼는 옷감 안쪽에 잘 숨어 있어야 세탁 시 다른 옷을 망가트리지 않는다.

또한, 양쪽 지퍼 날의 길이가 똑같아야 반듯하게 잠기고 열린다. 시작과 끝부분이 튼튼히, 깔끔하게 달렸는지도 체크하자.



7. 헐거운 단춧구멍

하루에도 몇 번씩 여닫는 단춧구멍은 튼튼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도 하다. 새 청바지의 단춧구멍 바느질 상태가 좋지 않거나 이미 속이 빠져나왔다면, 얼마 안가 해지기 쉽다.

사진=shutterstock, 더팁